

#해시태그

주식전략. 한대훈 / 3773-8515, handaehoon@sk.com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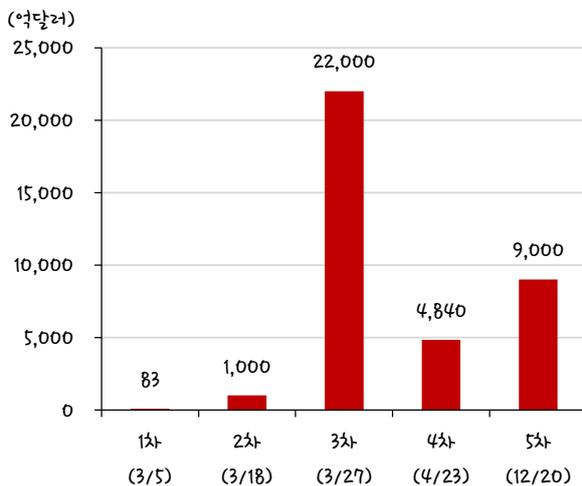


2020-12-24

해 (解,답)가 없는
시 장을
태 연하게
그 리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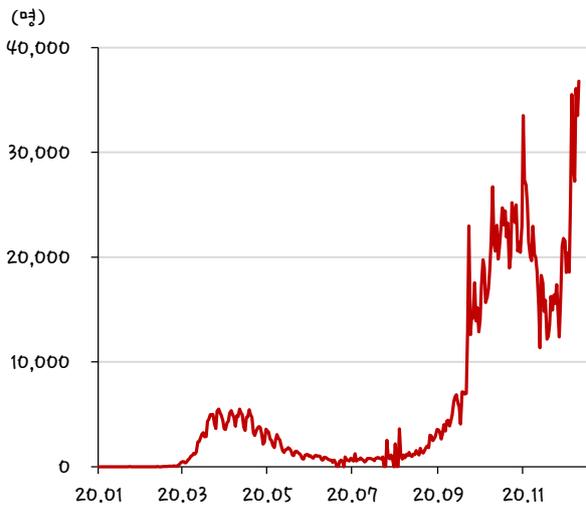
연말 및 연초 주요 관전포인트

미국 경기부양책 규모와 추이



자료: 미국 재무부, SK 증권

영국 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SK 증권

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.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의 빌미를 변종 바이러스, 트럼프의 추가 부양책 제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. 남은 연말과 내년초까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점검해봤다.

우선, 미국 의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9 천억달러 규모의 5 차 경기부양책에 제동이 걸렸다.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지원금이 600 달러로 너무 적어 2 천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져오라며 부양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. 1 인당 2 천달러 규모의 지원금은 지난 3 차 부양책보다(1200 달러) 많은 규모다.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8 일까지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섰다운된다. 다행스럽게 민주당이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혔고, 오히려 부양책 규모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. 새 수정안 처리와 규모확대 여부는 올해 연말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.

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의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능 테스트 착수 소식에도 관심이 쏠린다. 코로나 19 백신 개발 및 승인 소식이 나오는 현시점에서 기존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능이 입증될지 여부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과 맞물려 매우 중요하다.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처가 가능한지 검사 중이며 최소 2 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. 모더나 역시 향후 몇주동안 추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%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백신의 효능 여부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. 결국, 올 한해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코로나 19 와 트럼프의 몽니는 남은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.